



보도시점 2023. 11. 15.(수) 08:00 배포 2023. 11. 14.(화) 15:00

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

-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, 7.4만명에 일경험 기회 제공
-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
-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,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프로그램 강화

정부는 11월 15일(수) 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「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」을 마련·발표하였다.

‘23년(1~10월 평균)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.0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.9% 수준이며, ‘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.

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개월간(7~10월)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*을 체계화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재학·재직·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.

- * (취준-적극형) 직장경험x, 구직의욕↑ (취준-소극형) 직장경험x, 구직의욕↓, (이직-적극형) 직장경험o, 구직의욕↑ (이직-소극형) 직장경험o, 구직의욕↓, (취약형)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↑

① 재학·재직·구직 단계별 대응

[재학] 먼저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(12→50개교)하고 직업계고,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(‘24년, 20개소)도 신설한다.

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.4만명(민간 4.8만명, 공공 2.6만명)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.

더불어,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기술자격 응시료를 50%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.

[재직]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 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**온보딩 프로그램**(10개 지자체, 44억원)을 도입하여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**일·생활균형 문화 확산**을 위해 **유연근무 인프라 구축**(50→850개소) 및 **컨설팅 지원**(연 400개소)을 강화한다.

[구직]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**가칭 '청년성장프로젝트'**를 신설하고 **'청년도전지원 사업'**을 개선한다.

'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'는 일상유지 지원,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**'24년부터 시행될 예정**이다.

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**'청년도전지원사업'**도 지원인원을 9천명으로 확대하고, **중기 프로그램**(3개월) 신설, 참여자에 대한 **훈련비 지원 확대**,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**인센티브 지급** 등 개편할 예정이다.

또한, **니트청년 특화 일경험**(6천명)을 신규 도입하고 **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**도 신설할 예정이다.

②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

다양한 환경적인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**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**(13억원) 도입, **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**(연 200만원)을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해소한다.

③ 인프라 개선

[발굴 및 전달체계]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**정례협의체**를 신설하고, **공공데이터 연계**를 통한 **니트청년 발굴방안**을 모색할 예정이다.

[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] 또한,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**미스매치** 해소를 위해 **산리단길, 스마트공장 지원**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**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*(2.4만명, 최대 200만원), **상생연대형성 지원**(최대 50억원) 신설 등을 통해 **중소기업 취업자 지원**을 강화할 예정이다.

※ 별첨: 「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」

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|
| <기획재정부> |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허수진 (044-215-858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주운호 (044-215-8583) |
| <고용노동부> |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종호 (044-202-7440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조아라 (044-202-7458) |
| <교육부> |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태경 (044-203-6267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윤혜준 (044-203-6272) |
| <보건복지부> |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| 책임자 | 팀 장 | 장영진 (044-202-370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진웅 (044-202-3702) |
| <산업통상자원부> |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영호 (044-203-4430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김 효 (044-215-4439) |
| <중소벤처기업부> |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최명진 (044-215-79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기택 (044-204-7952) |
| <여성가족부> | 청소년정책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조 린 (02-2100-631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최요한 (02-2100-6319) 오주윤 (02-2100-6318) |
| <국무조정실> |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조정과 | 책임자 | 과 장 | 염철민 (044-200-1994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공도연 (044-200-1995) |

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주요내용

-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학→재직→구직 단계별 대응 강화
- 발굴·전달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등 인프라 개선 병행

| | 취준 적극형 | 취준 소극형 | 이직 적극형 | 이직 소극형 | 취약형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직장경험 | x | x | o | o | 환경적 취약성 |
| 구직의욕 | ↑ | ↓ | ↑ | ↓ | |

1 재학

재학단계 조기개입을 통한 원활한 학교-노동시장 이행 촉진

①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대학생 50개 대 38개 | 고등학생 20개 소 신설 | 지역청년 60개 대 11개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
②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민간 4.8만명 2.2만명 | 중앙부처 5천명 3천명 | 공공기관 2.1만명 0.1만명 | 대학(위외) 18개 대 5개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
③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·취업역량 제고

| | | |
|---|---|--|
| 고등학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75개 학과 20개 | 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9개교 4개 부트캠프 42개교 32개 | 일반청년 K-디지털 트레이닝 4.4만명 0.8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% 할인 |
|---|---|--|

2 재직

직장적응 지원 및 기업문화 개선으로 노동시장 이탈 방지

① 신입사원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(44억원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직청년 직장적응교육 450회 | 기업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 160회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② 일·생활균형 직장문화 확산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850개소 + 800개소 | 유연근무 컨설팅 400개소 |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설 1인당 30만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3 구직

특화 프로그램 집중 지원을 통한 쉬었음 장기화 예방 및 탈출 지원

① 구직단념 예방: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설(281억원)
미취업청년 대상 **일상유지·자조모임·심리상담** 제공(10개 지자체)

② 구직의욕 고취: 청년도전지원사업 강화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지원인원 9천명 1천명 | 프로그램 중기 과정 (3개월)신설 | 수당체계 구직노력에 따라 인센티브지급 | 훈련비 자부담을 인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
③ 특화 일경험 및 경력재설계 지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니트 특화 일경험 신설 6천명 | 이직청년 경력재설계 서비스 신설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
4 취약 청년

특성별 장애요인 해소 + 고용서비스 연계

① 특성별 지원 강화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·재적응 프로그램 신설 13억원 |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설 연 200만원 |
|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0만원 | 장애일병청년 자활근로 6.9만명 장애인 취성패 1.3만명 |

② 고용서비스·민간 인턴십 연계

발굴·전달체계 강화



쉬었음 관계기관
정례 협의체 신설



공공데이터 활용
발굴방안 모색

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

- 산리단길(1,867억원)
- 빈일자리 청년 지원금(2.4만명, 신설)
-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지원(317억원)
- 상생연대형성 지원(50억원)

